

# 고유한 우리말 쓰임새 정리

박용수 펴냄 《겨레말 용례사전》

순우리말의 단어별 예문사전이 국내 처음으로 편찬되었다. 《우리말 갈래사전》《겨레말 갈래 큰사전》을 펴냈던 박용수씨(62·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가 《겨레말 용례사전》(서울대 출판부)을 출간한 것.

《겨레말 갈래 큰사전》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전은 순우리말의 용례를 모아 《우리말 갈래사전》에 올려진 낱말 8만2천여 개 중 6만여개의 용례를 모았다. 4×6배판 판형 2,294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우리 고유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을 기획했다. ‘낱말’이라는 구슬을 꿰어 ‘좋은 글’이라는 보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서문을 통해 밝힌 박씨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같은 말, 잘못 쓰이는 말, 큰말, 작은 말, 센말, 여린말 등의 예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밥’의 경우 먹는 밥, 차지되는 모가치, 이용되거나 희생되는 대상 등 9가지 뜻에 따른 용례를 밝히고, ‘밥’자가 들어가는 30가지의 속담·격언을 소개했다. 또 가래밥, 가루밥, 고두밥 등 99가지의 역순어도 덧붙였다. 역순어는 명사어가 다른 명사어와 결합된 합성어에서 주격어가 꼬리에 붙는 합성명사. 다양한 단어를 역순으로 찾아갈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살려 쉽게 정리했다. 또한 ‘밥’과 ‘국’은 그 특성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 ‘밥’은 ‘짓다’나 ‘하다’는 쓸 수 있지만 ‘끓이다’는 옳지 않은 말이며 ‘국’은 반대로 ‘끓이다’라는 말만 쓸 수 있다는 식의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다.

우리사전에는 없지만 북한의 《현대 조선말 사전 2판》과 《조선말 대사전》에 수록돼 있는 북한 토박이말로 상당수 수록했다. ‘너절청하다’ ‘달궁달궁하다’ ‘챙랑하다’와 같이 우리정서에도 맞고 살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골라 소개했으며, 뜻은 같은데 남북의 표기가 다른 경우 북한식 표기(두레→드레, 검둥개→검정개)도 따로 소개하기도 했다. ‘검정개는 돼지편’과 같은 속담이나 격언, 경구와 ‘가로등만 챙랑대는 빈 밤거리’와 같은 관용구 등도

가능한 한 많이 예시했다. 우리 민족 정서와 관련된 ‘호랑이’라는 낱말의 경우 그 예문이 100여개에 달하기도 한다.

이 작업을 위해 문체부는 한글문화연구회에 93년부터 매년 4500만원씩 3년 동안 1억 3500만원을 지원했다. 박씨는 93년에 만든

## 한국 현대미술이 생동하는 현장

시공사 <아르비방시리즈> 완간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르비방 미술총서가 전5권으로 완간됐다. 도서출판 시공사(대표 전재국)가 지난 92년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한 이 시리즈는 93년 12월 《조덕현》 출간 이후 5년여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불어로 ‘생동하는 미술’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르비방(Art Vivant)은 화가들의 작품세계를 한 권의 화집에 펼쳐 보여 한국현대미술의 생생한 현장으로 안내한다.

수록된 작가는 조덕현·한만영·김호석·김인겸·김태호·구본창·신문섭·서용선·유리지·육근병·김호득·정경연·황주리·지석철·김영원·권여현·임옥상·유재구·문봉선·임영균·오수환·이철량·황창배·김식 등 55명. 이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면서 회화·조각·설치·공예·사진 등 미술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30, 40대의 젊은 작가들이다. 작가 선정은 이일(홍익대), 오광수(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김영나(서울대), 서성록(안동

《겨레말 갈래 큰사전》과 이번에 완성된《겨레말 용례사전》을 합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계획이며 ‘문예창작사전’이나 ‘논술사전’ 등 전문분야별 용례사전도 만들 계획이다.

—마정미 기자

대), 한정욱(전 호암갤러리 큐레이터) 5명으로 구성된 작가선정위원회가 맡았다.

아르비방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미술의 최신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한 것. 한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표작들만을 엄선해 시기별, 경향별, 장르별로 배열해 작품세계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다. 각 분야별로 대표작가들을 뽑았기 때문에 시리즈 전체를 보면 한국 현대 미술의 거대한 지형도가 된다. 특히 참여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선정, 배열하도록 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작품의 부분확대와 전시장 전경,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중인 작품을 보여주어 실제 작품을 직접 대하는 듯한 현장성도 고려했다.

출판사측은 기획단계부터 ‘한국 미술의 국제화’를 표명해 평론가들의 작품평과 제목, 작가 약력 등을 모두 한글과 영문으로 혼용 제작하였다. 이미 95년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시회에 출품해 한국 미술 출판의 해외진출을 타진한 바 있다.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전문서점 아티누스와 국내 에이전시를 활용, 국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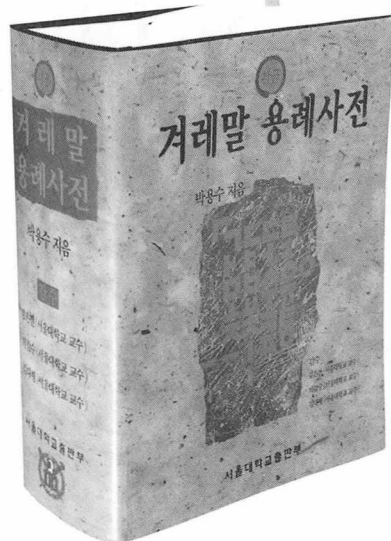
## 인간과 삶에 대한 사유와 예술의 발자취

학교재 <세계문화예술기행> 시리즈 1차분 출간

도서출판 학교재(대표 우찬규)는 <세계문화예술기행>시리즈 1차분을 출간했다. 이 시리즈는 11명의 문인들이 세계 문화예술의 현장을 둘러보고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와 예술의 발자취를 정리한 세계여행기. 그들이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에피소드,

그 나라 예술품에 대한 감상 등이 개성있는 문체와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갈무리되어 있다.

1차분은 김영현씨의 《서역의 달은 서쪽으로 흘러간다》(실크로드편), 김혜순씨의 《들끓는 사랑》(스페인편), 최수철씨의 《사



# 생명력을 창조하는 손길

## 갈리마르 출판사의 《그림의 발명》

장익순 · 출판기획가



자료제공 / 임프리마 코리아



막에 묻힌 태양》(이집트편)이며 이어서 박완서(티베트, 네팔) 광재구(터키, 중앙아시아) 황지우(이탈리아) 김승희(마야) 임철우(아일랜드) 이인화(몽골) 김명인(독일) 고종석(프랑스)씨의 책이 발간될 예정이다.

김영현씨의《서역의...》는 지난 94년, 95년 두차례 50여일간 살크로드를 여행하면서 옛 삶의 흔적과 현재의 삶을 기록한 글이다. 칭다오, 시안, 허시후이랑, 둔황, 투루판, 신장의 우루무치, 그리고 텐산에 이르는 여정을 담았다.

김혜순씨의《들끓는 사랑》은 기독교와 이슬람문화가 뒤섞인 이국적인 스페인 여행 기록. 자신의 이름을 도나 키호타(여자 돈키호테)라고 칭할 정도로 동화된 저자의 “플라멩코와 돈키호테와 가우디와 고야에 들어 있는 웃음과 죽음”에 대한 느낌과 사유다.

최수철씨의《사막에...》는 95년 9월 한달 남짓 이집트를 여행하며 상형문자들과 고대 유적들의 도저한 매혹에 빠져 수천년의 인류 역사를 반추하여 쓴 기록. 카이로, 타호리르 광장, 기자, 멤피스, 콤폴보, 테베, 네크로폴리스, 베니하산, 알렉산드리아 등을 둘러본 기행담을 실었다.

내용뿐 아니라 외판도 남달라 책사운음에서 집자한 표제글씨나 문양, 본문글씨 등 책자에 기울인 지극한 정성이 엿보인다.

—마정미 기자

### 고침

《출판저널》 제202호 23쪽 기사 중 영풍문고 부천점의 ‘최확식 지점장’으로, 제203호 4쪽 기사 중 목동 도서관은 현재 ‘모자열람실’을 운영 중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거리를 따라 죽 늘어선 청계천 의류상가를 지나면 황학동이 시작된다. 십여년 전부터 벼룩시장처럼 생겨나더니 이제는 두 블록을 넘는 대형 코끼리시장으로 변해 버렸다. 일요일 한가한 오후에는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성황이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골동품들, 일남전에 흘러다니던 물건들, 파산한 부자집에서 갖 쏟아져 나온 듯한 것들, 진기한 외국 물품들, 이태원 미군 부대에서 나온 듯한 물건들, 어디서 뜬어냈는지 모르는 컴퓨터 핵심 회로 기판들, 한참 신였지만 아직 쓸만한 구두들, 오래된 음반, 시장에 들다 남은 비디오와 게임, 낡았지만 새 주인을 기다리는 옷가지, 흔히 볼 수 없는 수제 칼들과 라이터, 죽은 무당집에서 나온 듯한 요령과 주발들. 발길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학동 물건들은 어느 것이나 전에 쓰던 사람의 지문이 닳도록 배어있다.

### 지층처럼 쌓인 시간의 흔적

황학동에는 물건들이 살아 있다. 다들 제 내력을 가지고 새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내력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이들의 손길과 숨결이 만든 것이다. 처음엔 반질했을까? 그들은 팔려간 곳에서 쓸리고 떨어지고 닦여서 시간의 흔적이 지층처럼 쌓여 있다. 황학동, 그 외진 곳이 그렇게 번창하는 건 물건들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퇴적물들 사이를 겨우 나다니면서 사람들은 이리 만져보고 저리 고른다. 이전 주인과 친밀한 악수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흥정이 시작되고 돈이 오간다.

물건에는 세 종류가 있다. 새 것과 헌 것, 그리고 황학동 물건같이 낡은 듯 호소력을 가지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 출판물 역시 마찬가지로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새 것, 헌 것, 낡은 듯 오래오래 가는 것. 따지고 보면 두가지다. 새 것은 곧 헌 것이니 한가지나 다름없으니까. 그렇다면 모든 물건은 두가지겠다. 흐르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과 견뎌내지 못하는 것.

구한말,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개화했던 일본이 기계로 갖 뽑은 반지르르한 물건들을 값싸게 대량으로 팔러 다녔다. 그것은 신기하기도 했고 예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것들은 모두 시간에 허약하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몇번 휘두르면 이가 빠지는 왜냐 처럼. 그래서 반지르르하지만 속이 없는 것들을 형성하는 ‘왜’라는 접두어가 생겨났다. ‘왜놈 물건 같은 것’이라는 뜻이다. 순박한 우리네들은 그런 물건들을 천박하게 여겼고 쓰기를 부끄러워 했다. 반지르르하기보다는 소박하기를, 알팍하기보다는 체온 나눌 만하기를, 갈상갈상한 외모보다는 묵은 듯 도타운 내면이기를, 치장보다는 실용적인 따듯함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시간과의 친화력을 좋아하는 삶이었던 것이다.

우리 선인들이 귀히 여기던 책만 해도 그렇다. 부르튼 손으로 하얗게 때내어 말린 한지에, 제 배울 사서삼경을 한자한자 베껴 정성스레 접어서 노끈 매어 책으로 만들어 머리맡에 두었던 ‘수제본’은 보기만 해도 부럽다. 거기엔 삶이 그 무게만큼 배어서 만든 이의 인격을 향기처럼 풍겨낸다. 그런 책들은 대물림되었다가 으레 문집처럼 엮어져, 귀중한 가보로 전승되었다. 문화를 말 그대로 직접 ‘만들고’, ‘향유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 만들기는 고사하고 다만 ‘소비’할 뿐이다. 새것일수록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오늘날, 사람의 깊은 속과 숨길을 오래 나누어야 마땅할 문화 상품조차도 ‘시간의 모래밭’이 되어버렸다. 오늘의 책은 곧바로 쏟아져나오는 내일의 책들에게 밀려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유행에 따라 부실한 내용을 그럴 듯

하게 분석해서 내놓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 선인들이 부끄러워 했던 그 ‘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인스턴트화되어 가는 것을 다들 방치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결과로 여기면서.

‘왜’의 치유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네 핏속을 숨죽여 흐르는 ‘시간과의 친화력’을 끄집어서 현재화하는 일이다. 좋은 기획자가 되기 위한 첫 요건은 그 친화력을 우선 자기것으로 내면화하는 일일 것이다. 내면화된 친화력의 눈을 가지면 손길은 저절로 생명력있는 것을 창조한다. 황금을 만드는 마이더스의 손처럼.

### 살아있는 문화요소

살아있는 문화요소로서의 책을 만들어 가려는 기획자의 이상이 울퉁이 배어 있는 작품을 소개한다.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1993년에 펴낸 《그림의 발명》이다. 원시 동굴벽화부터 이집트 파피루스 그림, 그리스 도자기 그림, 로마시대의 그림, 동양화의 발전,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근대와 현대로 이어지는 그림의 변천과 도구의 발전과정을 48쪽에 정말 충실하게 담고 있다. 더구나 그 충실도는 다채로운 편집과 다양한 제작기법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시간과의 친화력’이 빛어낸 기획작품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하겠다. ❖